

성리학과 이슬람의 유사성에 대한 발생론적 初探

김덕삼* · 이정자** · 최원혁***

<목 차>

1. 들어가며
2. 이슬람과 성리학의 유사성
3. 이슬람과 중국 문화의 공동 기원 가능성
4. 이슬람의 성리학 영향 가능성
 - 4.1. 이슬람의 성리학 영향에 대한 지역별 연구 동향
 - 4.2. 기존 연구에서 본 이슬람의 영향 가능성
 - 4.3. 기타 가능성
5. 나가며

1. 들어가며

이슬람과 유교는 불교와 기독교를 포함하여 인류 문명을 대표하는 정신문화다. 그런데 여기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유사하다면, 상대적으로 불교와 유교를 하나로 묶어 유사함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불교와 유교에 대한 비교 연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슬람과 기독교에 대한 비교 연구도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유교와 이슬람을 비교하는 것은 많이 시도되지 못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과 동아시아에 많은 영향을 미

* 대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부교수

*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강사

쳤던 유교의 성리학(性理學)과 이슬람의 관계 연구는 더욱 그렇다.

오늘날 유교와 이슬람이라는 두 대표 문화의 소원한 관계는 두 문화 사이에 있었던 문화교류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이처럼 소원한 관계로 바뀌게 되었을까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두 문화의 소원함에는 두 문화 자체의 소원함이라는 상식과 달리 근현대 두 문화의 국가 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 그러나 이슬람문화와 동아시아의 문화는 여러 측면에서 과거와 다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첫째, 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이유다.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 경제의 힘은 증대되었고, 많은 국가가 무슬림과의 관계정립에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이슬람과 종교적 대립이 없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 들어 이슬람 문화에서 한류의 유행과 동아시아의 경제적 부상으로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다. 특히, 동아시아와 이슬람 문화와의 관계는 새로운 세계 평화의 축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래서 두 문화권의 관계정립은 유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리학과 이슬람이라는 두 대표문화의 관계정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부상에 따른 변화다. 중국은 이슬람교가 가장 먼저 전파된 국가 가운데 하나다. 중국은 이슬람교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그곳 사람들과 경제적 문화적 왕래가 빈번했다. 이슬람교가 흥기한 이후에는 사신(使臣), 상인, 학자 등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와 종교와 생활 풍속 등 다방면에서 중국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10여개의 민족 전부 혹은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신앙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과 이슬람의 역사적 연원은 깊고 다양하다.¹⁾ 이슬람 문화도 도심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학교 식당만 해도 이슬람 식당이나 이슬람 교인을 위한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세기 후반 들어 급격하게 떠오른 중국의 부상은 이슬람 문화와 중국 문화(유교 그리고 성리학)의 관계에 대해 보다 활발한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1) 金宜久 主编(1996), 『当代伊斯兰教』, 东方出版社, 1996, 332쪽.

반면, 이슬람과 성리학의 관계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상황은 조금씩 다르다. 성리학의 이슬람의 관계를 밝히는 측면에서 중국은 적극적이지 않다.²⁾ 중국은 중화사상의 영향인지 중국 밖의 것에서 이러한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또한 소수민족과의 분열, 특히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문제 등에서 이슬람의 문화가 존재하기에 이러한 연구에 적극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³⁾ 일본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특히 고대 일본 문화는 문화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았기에 성리학의 이슬람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반면, 한국은 주어진 조건은 열악하지만 성리학에 대한 문화적 축적, 이슬람문화와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로움, 한국 문화와 경제의 이슬람 문화에서의 인기 등에 힘입어 비교적 나은 편이다.⁴⁾

성리학의 이슬람의 유사성에 대한 발생론적 접근을 시도해 보려는 본 연구는 기존의 관점과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또한 경로의존성에 따른 많은 예에서 발견되듯 성리학의 이슬람에 대하여 가

- 2) 중국은 역사적으로 이슬람과 유교를 비교한 시도를 해왔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回儒對話：天方之經與孔孟之道』(柳一虹著, 宗教文化出版社, 2006年), 『伊斯蘭文明與中華文明的交往歷程和前景』(馬明良著,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年), 『王岱輿思想研究』(金宜久著, 民族出版社, 2008年) 등의 저작 연구가 있다. 관련 학술지도 다양하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阿拉伯世界研究』, 『西亞非洲』, 『回族研究』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대부분이 이슬람 문명의 이해, 혹은 문명의 화해와 같은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유교와 이슬람 문명의 비교 등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어, 18세기 초 劉智와 같은 인물이 출현하여 이슬람과 유교의 사상을 비교하고 그를 토대로 상호 이해를 마련했다는 정도에 머문다. 사상의 기원이나 연원, 특히 성리학의 탄생에 미친 이슬람의 영향에 대한 것은 찾기 어렵다.
- 3) 이슬람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중국의 소수민족에서도 회족(回族)과 위구르족은 그 차이가 크다. 회족은 700내지 800년에 걸친 시간 동안 중국문화에 동화된 반면에, 위구르족은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김덕삼, <中國少數民族文化接變 樣相의 變化: 回族와 彝族의 文化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9집, 2012년 12월 30일, 156-161쪽. 물론 처음부터 회족과 위구르족으로 구분되지는 않았다. 1884년 11월 18일 위구르 지역이 청의 영토에 편입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 4) 한국이 정립할 수 있는 성리학의 이슬람의 관계는 비단 동아시아 문화를 넘어 이슬람과 서구문화의 관계 정립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한국은 이슬람과 같이 모든 문화에 있어 제 3자적 관계에 있다는 점이 또한 이슬람과 경험을 공유하며 이슬람과 성리학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성리학의 이슬람 문화권이 두 문화권의 무관심으로 한국과 같은 제 3국에서 이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오히려 한국이기에 이 연구는 객관적 가치를 떨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졌던 이전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연구자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의문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다. 연구 과정 속에 이를 지지해주는 외국의 문헌과 자료도 찾았고, 성리학과 이슬람의 공동기원이나 영향에 대한 다른 여러 가능성을 발견했다. 물론 어떤 것은 편향된 경향의 자료도 있고, 어떤 것은 보다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는 근거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그마한 가능성도 가급적이면 모두 수용하려 하였다. 본고를 통해 기존의 이론을 뒤바꾼다는 의도보다는 이슬람과 성리학의 유사성에 대해 이러한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이슬람과 성리학의 발생론적 유사성 고찰을 통해 유럽, 미국과 상관없는 독자적인 관계 구축의 가능성 또한 살펴볼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지속적인 연구 속에 보다 발전된 이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2. 이슬람과 성리학의 유사성

물론, 과거에도 이슬람과 성리학의 유사성에 대한 것은 다방면에서 지적되어 왔다. 정리해 보면 첫째, 일본의 여류학자 사치코 무라타(Sachiko Murata)가 『Tao of Islam』에서 언급한 연구.⁵⁾ 둘째, 명청 시대 중국 이슬람

5) 사실 그녀의 주장이 이슬람 전체의 주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슬람 신비주의인 Sufism을 주로 연구하는 학자다. 그래서 그녀는 이슬람이 남녀의 불평등을 규정했다고 보는 주류 율법학(샤리아)적 사고에 반박하기 위해서 비주류이자 만주류로서 페미니스트적 어젠다를 가지고 『Tao of Islam』을 썼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 그래서 책에 인용되는 인물들은 율법학자보다 수피, 신비주의적 성향의 이론가들이 많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녀의 연구도 근거 자료로 이용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본 연구 주제가 시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비주류의 입장이라도 귀 기울여 보려 하였다. 둘째, 그녀와 그녀의 사상 역시 커다란 이슬람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셋째, 그녀가 신비주의자라 할지라도 이 역시 이슬람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의 성리학 융합을 연구해 온 일본 마츠모토 아키로(松本耿郎)교수의 연구. 셋째, 명청 시대 중국 내 이슬람 학자들의 연구. 넷째, 한국의 비교민속학자인 이광호가 이슬람과 한국의 민간신앙에서 밝힌 연구. 다섯째, 중동 전문가들의 비교문화 연구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유사성에 대한 발생론적 접근을 시도하지는 못했다.

먼저, 일본의 여류학자 사치코 무라타는 『Tao of Islam』에서 이슬람의 성법인 샤리아(Shari'ah)도 음양의 원리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슬람 연구에서 사치코 무라타가 음양의 논리를 제시한 것은 미국에서의 동양인 교수로서 중동에서 오랜 생활을 해 온 그녀가 느낀 상식과 실제와의 차이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슬람은 19세기 이후 유럽으로부터 남녀불평등국가로 각인되어 왔다. 그러나 동양인으로서 이슬람문화에서 생활한 그녀는 이슬람이 동양이나 유럽보다 더 나은 남녀평등의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실제 이슬람은 8세기 이슬람이 형성될 당시부터 남녀평등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사치코 무라타가 이슬람의 남녀평등 사상의 근거로서 주목한 것은 『코란』이었다. 『코란』은 남녀평등 뿐 아니라 전체가 음양이라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으며, 유럽과 같이 한쪽이 한 쪽을 억압하는 구조가 아니고 중국처럼 수평적인 음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치코 무라타가 발견한 『코란』의 음양구조의 발생을 추적해 본다면 이슬람, 유대교, 중국이 공유하는 고대 문명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구약성서를 공유하는 것처럼, 이슬람이 알라(allah)라는 신의 이름을 유대교와 공유하고, 구약성서가 수메르 바빌로니아의 음양 전통을 계승했다면, 이슬람은 기독교보다 음양 구조를 잘 계승한 종교이기에 남녀평등의 문화를 일찍이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다.⁶⁾

둘째, 명청 시대 중국 이슬람의 성리학 융합을 연구해 온 일본의 마츠모토

6) Dr. Muhammad Legenhausen(1992). 『Tao of Islam』 Book Review, by Sachiko Murata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On-line]. Available from <http://www.al-islam.org/al-tawhid/general-al-tawhid/book-review-tao-islam-sourcebook-gender-relationships-islamic-thought-0>

아키로교수가 발견한 성리학에 대한 이슬람 영향의 근거를 살펴본다면 얼마전 중국을 방문한 마츠모토 아키로교수가 중국 푸젠성 동남부에 있는 천주(泉州)의 이슬람 사원에서 중국 선종 불교 승려의 무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⁷⁾ 이슬람 사원에서는 한국의 고려 관리 등 수많은 이방인들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이로 미루어 당시 이슬람 종교 지도자와 불교 승려들의 교류가 실제 활발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리학에 영향을 준 불교, 그리고 그 불교와 교류를 한 이슬람이라는 구도가 자연스럽게 설정된다. 그 속에 이슬람은 성리학보다 먼저 존재하면서, 성리학의 성립에 불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적으로든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화엄경』의 이사무애(理事無碍)는 이슬람의 타우히드(Tawhid)와 플라톤과의 사상적인 유사성을 갖는다. 하나의 이데아가 만물에 통한다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은 원류가 브라만-아트만이든 상관없이 『화엄경』의 이사무애와 이슬람의 타우히드에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서 성리학의 중요한 용어인 이(理)의 의미와 기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理)라는 개념이 이슬람의 타우히드와 같은 개념으로 쓰이게 되는 것은 전국(戰國)시기 『장자(莊子)』까지 소급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장자(莊子)』『천운(天運)』에서 나오는 ‘조리(調理)’의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⁸⁾ 여기서 이(理)라는 개념이 타우히드처럼 사물에 독립하여 이데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나라에는 음양, 기, 조리라는 개념이 『황제내경』 등을 통하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조리(調理) 개념은 혁신적이었다. 조리(調理)와 조리(條理)가 다른 것은 조리(調理)는 기화된 세계에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사상이었다. 『장자』의 조리 개념이 형성된

7) 몽골제국 시기 색목인 우대 정책에 따라 14세기에 활발히 이주한 아랍이나 페르시아 출신의 이슬람인들을 위해 천주의 이슬람 사원이 축조되었다. 그러므로 무덤도 당연히 그들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

8) 그런데, 『천운(天運)』에서 ‘조리(調理)’라는 글자를 전후하여 35자는 주(注)가 삽입된 것이라 보기도 한다. 특히, 송나라의 소철(蘇轍)이 지적했는데, 이것이 광상(郭象)의 주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면 조리라는 말의 사용연대는 최고로 올려 잡았을 때 장자가 살았던 기원전 369-286년부터, 광상이 살았던 서기 252-312년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래도 송명리학의 시대라고는 많은 차이를 두고 있기에 본고 논의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는 다음 별도의 논문에서 종합적인 고증을 하겠다.

것은 동중서에 의해 음양오행과 기 개념이 안착되기 이전이다. 『장자』가 쓴 조리 개념은 무용지용(無用之用)의 개념이나, 『장자』「천하(天下)」에 나오는 불견시비(不譴是非), 『노자』2장에 나오는 상반상성(相反相成)과 통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교의 화엄종과 이슬람의 종교지도자들은 성리학에서 형성되어 가는 이기(理氣) 개념을 주목했고, 그래서 어느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는 조리, 기화 개념으로 타우히드를 설명하려 하였는지 모른다. 물론 이러한 설명에서 타우히드의 개념을 단순화시키고, 플라톤이나 『장자』의 사상과 유사하다고 본 것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현상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닌 문화의 보편성에 기인하는 것이지도 모른다. 물론 현상학적 유사성을 발생론적 유사성과 동치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가능성을 찾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유사성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것이라 여겨 언급했다.⁹⁾

셋째, 명청 시대 중국 내의 이슬람 학자들은 성리학과 이슬람을 비교하여 공통성을 지속적으로 찾아 낸 바가 있다. 예를 들어, 胡登洲(1522-1597년), 王岱輿(약 1570-1660년), 馬注(1640-1711년), 劉智(약 1660-1711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17세기 중기부터 王岱輿가 시작한 유교와 이슬람의 비교는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¹⁰⁾ 하지만 성리학에 미친 이슬람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다.

넷째, 한국의 비교민속학자인 이광호가 이슬람과 한국의 민간신앙에서 밝힌 연구다. 그는 연구에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은 중앙아시아의 전통 신앙에 입각하여 이슬람을 수용했는데 중앙아시아에는 이슬람과 성리학의 공통 기원적인 문화가 많다고 보았다.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은 중동의 이슬람보다 전통적인 요소가 많다고 한다. 중앙아시아 이슬람에 전통적 요소가 많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중앙아시아 전통이 이슬람과 유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다섯째, 중동 전문가들의 비교문화 연구를 보면, 오늘날 종교계로부터 시작

9)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학적, 교리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계속 보강할 것이다.

10) 丁克家, 「文明對話視角下的回儒對話」, 『阿拉伯世界研究 Arab World Studies』, 2011年 5月, 第3期, 77쪽.

되는 중동문화와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슬람과 중국 문화의 공동 기원 가능성이라는 다음 장에서 관련지어 알아보겠다.

3. 이슬람과 중국 문화의 공동 기원 가능성

성리학에 대한 이슬람의 영향은 이슬람과 중국 문화의 공동 기원 가능성에서 또 하나의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류가 없었던 두 이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려면 보다 근원적인 구조적 공통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슬람과 중국 문화의 공동 기원 가능성은 최근 지수화풍(地水火風) 세계관의 국제적 보편성에 기인하여 연구되고 있다.¹¹⁾ 지수화풍은 중국, 인도, 유럽, 이슬람에 공통적으로 분포된 고대 자연과학의 핵심개념임에도 그 정확한 기원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¹²⁾ 그러나 지수화풍과 관련된 미트라 신앙 및 기타 자료를 종합해보면 대략의 기원과 전파 과정을 추측해 볼 수 있다.¹³⁾

-
- 11) 지수화풍은 바술라르 이후 현대 과학철학으로 부활하고 있다. 고대 이집트, 인도, 페르시아의 자연관이었던 지수화풍은 근대 이후 폐기되었다가 바술라르 이후 과학성이 입증되어 인류 보편이 무의식적 상상력의 근원으로 재평가되었다.
 - 12) 물론, 지수화풍이나 4원소, 혹은 5원소 등의 이론은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지 공동 기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학계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래도 왜 이 몇몇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지에 착안하여,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공동 기원의 가능성으로 보려 했다.
 - 13) 미트라는 미륵, 메시아의 기원이 되는 마이트레이아와 관련되는 태양신이라 할 수 있다. 고고학의 발달로 불교, 기독교 등 세계 3대종교가 미트라교와 연관되고 미트라교가 세계 공통 종교였던 것으로 밝혀진다. 3기능체계로 세계를 해석하는 미트라 종교는 자연에 대해서 또한 3기능체계의 근원인 원을 이용하여 지수화풍 4가지 체계로 해석한다. 고대 신화의 원은 영웅의 순환이라는 형태로 표현되었기에 세계의 신화는 모두 캠벨의 영웅의 순환이라는 틀을 가지게 된다. 미트라 또한 영웅 순환의 대표적 사례로 간주된다. 고대 신화의 핵심은 신명이 인간에게 고통과 시련 곧 지수화풍의 시련 속에서도 인간이 제5원소로 살아가는 힘을 주는 '재생의 삶'을 가르쳐 주는 데 있다고 캠벨은 주장한다(조셉 캠벨,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2007. 33쪽 재인용).

지수화풍 세계관의 국제적 보편성을 개괄하면 불교, 이슬람교, 유교가 분화되기 전 각 문명의 뿌리가 된 인류가 중앙아시아의 한 지역에서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연유에서인지 각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기에 세계문화는 보편적 공통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⁴⁾ 불교, 이슬람교, 유교에 영향을 준 분화되기 전의 종교는 지수화풍의 세계관과 제5원소에 해당되는 절대자의 존재를 가지고 있었다. 세계종교의 기원으로 간주되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는 대표적으로 고대종교에 나타난 선과 악의 이분법, 지수화풍의 중중무진(重重無盡) 자연관, 절대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¹⁵⁾ 고대 종교가 가진 선과 악의 이분법, 지수화풍의 자연관, 절대자의 모습은 우보로보스의 원으로 대표되는 순환적 세계관에서 도출되는 필연적인 결론이다. 원의 중심과 둘레처럼 지수화풍은 원의 둘레를 이루고 절대자는 제 5원소로 중심을 이루며, 중심을 가운데 두고 양측은 선과 악처럼 이분법적으로 대립한다.

세계 3대 종교는 이 원과 중심인 제5원소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제 5원소는 시간, 공간, 인간에 각각 적용될 수 있고 또 제5원소가 초월적으로도 내재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 세계 3대종교는 같은 기반 위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화되었기에 때로는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슬람과 성리학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했다.

제5원소를 초월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절대자를 초월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고, 내재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절대자 또한 일상에서 다른 존재들과 함께 내재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동양의 제5원소는 음양오행의 “토”라 할 수 있고, 서양의 제 5원소는 유일신이라 할 수 있기에 동양은 내재적, 서양은 초월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서양도 유럽과 이슬람을 비교해 본다면 신의 99가지 변화를 인정하는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내재적이라 할 수 있다. 위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제5원소를 초월적으로 공간에 적용한 종교는 이슬람이고 내재적으로 인간에 적용한 것은 성리학이라 할 수 있다.

14) 자크 아틸리 저, 이효숙 역, 『호모 노마드』, 웅진하우스, 2005, 128-130쪽.

15) 중중무진은 화엄경에서 오늘날 프랙탈 이론과 같이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어 중첩되는 형태를 표현한 용어이다.

이슬람과 성리학은 오늘날 양극단에 있는 종교로서 매우 멀게 느껴지지만 기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서로 영향을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가까운 존재이다.

절대자에 대한 내재적 해석과 초월적 해석보다 유럽과 이슬람, 그리고 인도, 동아시아를 구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순환과 제5원소 중중무진의 시공간 적용이었다. 중중무진이란 원(圓)안의 원(圓)처럼 원이 무한중첩으로 순환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것은 인도의 윤회적 세계관, 중국의 삼강오륜, 이슬람과 유럽의 건축양식 등에 반영되었다.

각 지역은 다시 시공간에서 제5원소를 초월적으로 적용하느냐 내재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인도는 힌두교와 불교, 유럽과 이슬람은 기독교와 이슬람교, 중국은 도교와 유교로 대립되었다 할 수 있다. 전자가 후자에 비해 제5원소를 초월적인 존재로 강조하고 있다. 인도는 불교가 힌두교와 대립하면서 원시불교에는 강조되지 않은 미륵과 비로자나불을 강조하는 화엄종이 강조되었고, 이슬람은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대체하면서 중중무진의 세계를 뜻하는 타우히드를 강조했다. 유교 또한 상제를 부정하다가 다시 상제를 대신하는 이(理)개념을 강조하는 성리학으로 도교와 비슷한 형태를 갖는다.

중국 선진유가에서는 상제 개념을 주요 관심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도교는 지속적으로 상제 개념을 유지하며 발전시켰다. 이슬람, 불교, 유교는 서로 영향을 주며 발전했다. 성리학은 형이상학적으로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초월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중국 전통을 부활시켰고, 불교는 화엄종의 하느님인 비로자나불을 강조하며 이슬람의 타우히드와 유사한 이사무애(理事无涯) 개념으로 마음보다 이치를 강조하였다. 실제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은 앞서 언급한 민족 이동과 공동 기원에 대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먼저 자크 아탈리는 중앙아시아의 민족집결과 재분산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목민의 역사에 대한 세계적 석학 자크 아탈리는 세계사를 유목민족의 역사로 규정하고, 유목민은 빗방울처럼 갈라졌다 합쳐졌다를 반복해왔다고 한다. 같은 종족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키메르, 쿠찬, 사카, 스키타이, 사르마트족으로

불리었다고 한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기마민족은 알타이지역에서 각지로 이주하였고, 기원전 1,500년경의 언어, 기원지, 종착지에 따라 크게 알타이어족과 인도-유럽어족으로 구분되었다. 알타이어족에 몽고족, 훈족, 투르크족 등이 있었고, 인도-유럽어족에 아리아족, 드라비다족, 수메르족, 스키타이족, 게르만족 등이 있었다고 한다.¹⁶⁾ 실제 중동, 이집트, 인도, 중국인이 내려왔다고 하는 히말라야 산맥은 발 한걸음 차이에 전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져, 초창기에 이들이 원시적인 공통문화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중국은 내재적 성격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 상제라는 초월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망각되었다. 그러나 불교와 도교와의 경쟁 및 이슬람의 영향으로 성리학은 상제라는 제5원소와 같은 초월적 성격을 발전시켰다. 이슬람은 초창기부터 중국의 당나라와 밀접한 연관을 가졌고, 당나라 초기에는 조로아스터교 형태의 지수화풍과 상제관으로, 그리고 후대 송나라 때에는 아리스토텔레스 형태의 지수화풍과 상제관으로 중국에 영향을 미쳤다.

소강절의 사례에서 보듯 성리학이 도교를 통해 내려오는 이기 개념의 전통에 영향을 받으면서 불교 화엄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미루어, 이슬람은 도교 혹은 불교의 화엄종에 영향을 주며 성리학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다.¹⁷⁾ 이처럼 이슬람과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기원적 친연성은 성리학에 대한 이슬람의 간접적인 영향을 증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16) 자크 아틸리 지, 이효숙 역, 『호모 노마드』, 웅진하우스, 2005, 128-130쪽.

17) 소강절은 자신이 밝힌 하도낙서의 이론이 공자가 도교의 은자들에게 전한 것으로부터 취했다고 한다(이봉호, 『정조의 스승, 서명응의 철학(서양 과학에 대한 조선학자의 대응)』, 동과서, 2014, 82~88쪽).

4. 이슬람의 성리학 영향 가능성

4.1. 이슬람의 성리학 영향에 대한 지역별 연구 동향

이슬람과 성리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첫째 문화 향유자인 이슬람과 중국에서의 연구, 둘째 일본과 미국에서의 연구, 셋째 한국에서의 연구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첫째, 문화 향유자인 이슬람과 중국의 선행연구를 알아보겠다. 먼저 이슬람 측의 연구는 말레이시아에서 추진한 이슬람과 중국 문화의 비교를 위한 국제 세미나의 실패 사례를 들 수 있다.¹⁸⁾ 동아시아와 이슬람 문화가 교차하는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과 동아시아의 교차점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려 하였다. 말레이시아는 동아시아의 이슬람 중심국으로 떠오르려는 목적으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려 했지만 이슬람국가의 냉대로 실패했다. 말레이시아 국제 세미나의 개최 실패는 이슬람과 동아시아 문화의 비교에 대한 이슬람 문화의 거부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의 경우에도 이슬람과의 연관은 부정 일변도로 진행되었다. 서양의 사학계에서도 일찍이 중국의 고대사는 이슬람이 있는 중동에서의 이주의 역사라는 가설이 강력했으나 100여년 전부터는 중국의 독자 문화 발생론으로 굳어지게 되었다.¹⁹⁾

둘째, 이슬람과 중국을 경계하는 일본과 미국의 연구다. 먼저 일본의 경우에는 불교와 연관되어 주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화엄경』이 어떻게 이슬람과 연관될 수 있는가와 성리학의 교리체계가 『화엄경』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18) 서정민, 이슬람에 나타나는 삼강오륜, 한국이슬람학회논문총 23(2), 한국이슬람학회, 2013, 6-7쪽.

19) 물론,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증과 연구로 밝혀져야 할 것이지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하여 무조건 단절로 대하는 것도 좋은 자세는 아니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슬람과 관계가 예상되는 삼황오제의 역사에 대하여 전설이란 견해 말고, 사실일 수 있다는 가정 속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슬람과 연결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연구가 심화되어 진행되었다.²⁰⁾ 그러나 일본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를 중심으로 탈아론을 일찍이 주장하여 동아시아의 일원이라는 유대감이 부족하다. 또한 성리학적 전통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한국과 중국에 비해 부족하여 성리학과 이슬람의 관계에 대한 내재적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국내에서의 불교 유행 등으로 이슬람을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미국에서의 연구로는 대표적인 것이 『The sage Learning of Liu Zhi: Islamic Thought in Confucian Terms』이다.²¹⁾ 그러나 미국은 일본보다도 동양의 전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한국의 경우를 보면, 한국은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혼재되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슬람과 성리학의 관계에 대한 한국의 선행연구는 첫째 고대사 연구, 둘째 이슬람과 한국의 근고대 교류사 연구, 셋째 민간신앙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고대사의 경우 한국은 일찍이 유목민족과 한국 문화의 관련성에 천착해 온 연구 흐름이 있었고, 최근 그 성과가 나타나서 기존 사학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밀한 이론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기존 사학계는 중국과 같이 동아시아 고대사를 유목민족의 역사와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럽 등지에서는 고고학과 인류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와 이슬람의 중동이 유목민족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둘째, 이슬람-한국 근세 교류사의 경우는 척박한 중동 연구 환경에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꾸준히 이룩되어 신라-고려-조선 시대를 연결하는 한국-이슬람의 교류사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²²⁾ 셋째, 이슬람권에 전도를 하고자

20) 松本耿郎, 「イスラーム存在一性論の構造と知的生命力(特集: イスラームと宗教研究)」, 『宗教研究』 78-2(341), pp.131-155, vi., 東京, 日本宗教学会, 2004; 本耿郎, 「イスラームにおける宗教間対話の理論(宗教間対話の思想—歴史的諸相とそれらの対話, パネル, 〈特集〉第68回学術大会紀要)」, 『宗教研究』 83-4(363), pp.180-181(1272-1273), 日本宗教学会, 2010; 松本耿郎, 「イスラーム哲学とオリエンタリズム」, 『国際大学中東研究所紀要』 4, pp.1-30 + 499-501. 国際大学中東研究所, 1990.

21) 『The sage Learning of Liu Zhi: Islamic Thought in Confucian Term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중국판은 『刘智的先贤知识: 儒家语境中的伊斯兰思想』, 村田幸子, 威廉·紫提克, 杜维明合著)

하는 신학자 등을 중심으로, 중동의 민간신앙과 한국 민간신앙 등의 공통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민간신앙연구는 고대사 연구, 근세사 연구의 성과와도 일치하는 성과이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본고에서 제기하는 이슬람과 성리학의 교리체계에 대한 부분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일본, 미국에서 시도되는 연구와 융합되어 비판적으로 연구될 때, 성리학과 이슬람의 유사성에 대한 좋은 근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4.2. 기존 연구에서 본 이슬람의 영향 가능성

성리학의 태동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첫째 중국 당나라 말기 오대 십국 시기에 이민족의 침입에 따른 국가 정체성 재정비의 필요성, 둘째 불교와 도교의 발전에 따른 유교의 대응, 셋째 사대부 계급의 등장이다. 이처럼 기존의 성리학 태동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이슬람과의 관계에 따른 것은 누락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이슬람과 관련하여 밝혀지는 역사를 보면 성리학 태동기에 이슬람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이슬람의 영향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당나라 말기 오대 십국 시기에 이민족의 침입에 따른 국가 정체성 재정비의 필요성. 이민족의 침입에서 이민족은 이슬람을 포함한다. 당 현종 시기 일어난 안록산의 난 때 당나라 북서쪽에는 위구르제국이 있었고, 당시 안록산의 난을 진압하는 데 위구르제국의 도움이 있었다.²³⁾ 예를 들어 티베트 길을 막아 돌아가지 못한 이슬람군이 당나라에 머물면서 도움을 준 것도 그렇다. 물론 위구르와 이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조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불교와 도교의 발전에 따른 유교의 대응이다. 도교와 불교에 대한 유

22) 이광호, 『이슬람과 한국의 민간신앙』, UUP, 1998; 박원길,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샤머니즘』, 민속원, 2001.

23) 황의갑, 「이슬람 동방전파의 유형연구 (중국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2(1), 한국이슬람학회, 2012, 8-9쪽.

교의 반작용으로 탄생한 성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 개혁하던 종교는 유교만이 아니었다. 불교는 선불교화되어 가고, 도교는 내단(內丹)화 되어가고, 유교는 성리학화 되어 가면서 유불선은 급격히 수양종교화 되어갔다.²⁴⁾ 그리고 그 이전의 상황 즉, 위진남북조 시기의 상황에서 유불도(儒佛道)가 서로 병립하며, 사상적으로 서로 융합되거나, 당시의 유명한 승려는 모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청담인물이었다. 그들은 불경과 유가도가의 전적에 대하여 대단히 열중했고, 현학의 의리를 가지고 불학을 논의하였고, 불학의 의리로써 현학을 발휘하였다.²⁵⁾ 이러한 외래종교의 정착과 사상적 회통의 전적으로 미루어 이슬람과의 왕래가 빈번히 일어나던 시절에 발생한 성리학이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추측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이슬람의 과학은 우주에 성리학의 이(理), 도교의 내단, 불교의 견성(見性)같은 것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크다.

셋째, 사대부 계급의 등장이다. 이슬람과의 교류를 포함하여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일어난 중국 사회의 변화는 사대부 계급의 등장을 도왔고 이들의 학문적 탐구정신은 이슬람교에 대한 공부를 진척시켰을 것이다.

사실 성리학은 원나라의 국가적 공인을 받기 전에는 하나의 학파에 불과했고, 심지어 남송시대 주자학은 이단으로 공격받았다.²⁶⁾ 이슬람과 라마교를 국교로 한 원나라는 성리학을 관학화할 정도로 이슬람은 성리학과 아무런 충돌 없이 결합할 수 있었다. 당시 수많은 동아시아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오늘날도 중국에는 5천만명이라는 무슬림이 살고 있다.²⁷⁾ 오늘날 중국의 이슬람이 성리학적 전통의 중국과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는 이슬람과 동아시아 문화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이슬람과 유교 문화는 비슷한 면이 있기에 개종이 어렵지 않다고 한다.²⁸⁾

24) 김경수, 『북송 초기의 삼교회통론』, 예문서원, 2013.

25) 侯外廬주편, 양재혁 옮김, 『中國哲學史』 上, 일월서각, 1988년, 260-261쪽.

26) 그러면서 한편으로 여진족인 금(金)에 침략을 받던 남송(南宋)시대에 살던 주자는 중화(中華)를 높이고, 이적(夷狄)을 물리치고 싶었을 것이다.

27) KBS, 「고려인 라마단은 왜 광저우에 묻혔을까?」, 2006.2.24, 역사스페셜 방영.

28) Tamer Musa,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가기: 한국 무슬림의 이슬람화 과정에 관한 연

또한 최근 주목되는 이슬람과 성리학의 유사성은 성리학의 역학적인 교리체계를 이슬람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²⁹⁾ 이처럼 성리학과 이슬람의 공통성은 양 문화의 기원과 발생 당시의 교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4.3. 기타 가능성

앞서 언급한 가능성 외에 다른 기타 가능성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슬람의 타우히드 사상이 성리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슬람의 타우히드는 '하나로 만들다' 또는 '하나됨을 선언하다 혹은 인정하다'의 동명사형 하나님의 유일성(唯一性), 불가분성, 절대성, 유일한 실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³⁰⁾ 타우히드는 신플라톤주의와 같은 유출설의 한 변형태로 『화엄경』의 사사무애(事事无涯)와 이사무애(理事无涯)와도 유사하다.³¹⁾ 이슬람 사상이 선택한 철학이론인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기독교로 전파되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성리학은 오늘날 가톨릭의 공식 철학인 토마스 아퀴나스철학 곧 토미즘과 매우 유사하다는 연구도 이미 발표되었다.³²⁾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은 이미 이슬람의 이븐 시나와 이븐 루시드 철학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³³⁾

둘째, 성리학 발생 시기에 유입된 이슬람 과학이 성리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명말 청초 시기의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전교 과정에서 과학을 활용했던 것처럼, 당나라 이후의 이슬람 과학 또한 중국의 과학에 큰

구」 2006,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9쪽-31쪽.

29) Sachiko Murata, 『Tao of Isla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92.

30)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ition, Vol. 10, Edited by P. J. Bearman, Th. Bianquis, C. E. Bosworth, E. van Donzel and W. P. Heinrichs, 2000. 김정위, 『이슬람사전』, 학문사, 2002.

31) 신플라톤주의는 이슬람 사상 안에서 일부분에만 영향을 미쳤고, 일부 신학과 수피 신비주의에만 들어있다.

32) 소병선, 『주자학과 토미즘의 철학적 협연』, 2006, 동광서.

33) 아베로에스, 아베로에스의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김재권 역, 한국학술정보, 2012.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슬람 과학이 중국 과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있어도 이슬람이 성리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중국 유학사를 살펴볼 때, 성리학에서 갑자기 이(理)의 개념이 탄생하는 것은 어떤 영향에 의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최근 이란에서는 신라에서 왕의 환대를 받고 돌아와 이란을 구한 페르시아 왕자 설화가 실제 역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만큼,³⁴⁾ 이슬람과 동아시아의 관계는 밀접했고, 그러기에 성리학에 이슬람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높아진다.

이슬람 과학은 음양오행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 과학에서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설명 분야를 가진 것처럼 이슬람 과학과 유사한 이기론은 음양오행이 설명하지 못하는 분야를 새롭게 설명해 주었다.³⁵⁾ 성리학의 이기론 전개는 이슬람 과학에서 보여준 자연과학적 근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실제 주자는 성리학자이기 전에 자연과학자라고 할 만큼 이기론을 자연과학에 적용시키는데 관심을 두기도 했다.³⁶⁾ 그러므로 이슬람 과학이 중국 과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면, 이슬람이 성리학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민족적 친연성에 근거한 가능성이다. 이슬람이 성리학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슬람과 동아시아의 민족적 친연성 때문이다.³⁷⁾ 물론 이슬람 창시 이전의 중동과 이슬람 창시 이후의 중동은 차별성도 있지만 민족적 연속성도 갖고 있다. 오늘날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동아시아 종교인들 그리고 이슬람 민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슬람 민족과 동아시아 민족의 유사성을 언급하고 있다. 원래 이슬람은 아랍보다 투르크(돌궐) 민족에게 전파되어 서아시아로 진행된 바 있는데, 이슬람이 영향을 미친 세 문명 곧 아랍-이

34) 이희수, 고대 페르시아 서사시 쿠쉬나메(Kush-nameh)의 발굴과 신라 관련 내용,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0(3), 한국이슬람학회, 2010.

35) 김태호(2007), 『아리스토텔레스 & 이븐 루시드: 자연철학의 조각그림 맞추기』, 서울: 김영사.

36) 야마다 케이지(1998), 『주자의 자연학』, 김석근(역), 통나무.

37) 이슬람과 동아시아는 신명 혹은 천사관에서도 공통성이 나타난다. (손주영(2010): 이슬람 전통에서의 천사관,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0(2), 한국이슬람학회, 116-117쪽.

집트, 페르시아(이란), 투르크(중앙 아시아)는 모두 동아시아와 문화적 친연성을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파되어 갔고 아직도 그 유습이 남아 있다.³⁸⁾

이상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가능성 외에 근본적으로 이슬람의 영향이 성리학에 일정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활발한 교류를 생각하여 이를 시공간적으로 확대하면 보다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기에, 다시 말해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기에, 앞서 다양한 추론만 언급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 속에 추측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 기대한다.

5. 나가며

한국에서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한류’가 인기를 끌자, 9·11 이후 이슬람 문화에 대하여 가졌던 부정적 인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한국과 이슬람 간에 알려지지 않은 공통점도 드러났다. 어떤 면에서 한국과 이슬람은 강대국 문화에 둘러싸인 (이슬람이 한국보다 면적이 커서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지만) 반도문화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의 한국과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제 3자적 혹은 중간문화라는 공통점은 성리학과 다른 문화, 특히 동아시아의 성리학과 이슬람 문화와의 관계를 밝혀 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류의 어떤 문화도 홀로 이루어지고, 홀로 완성된 것은 없다. 끝없는 교류와 전파 속에 창조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통해 존재했다.³⁹⁾ 예를 들어, 고대 인도에서는 석가모니같은 성인의 모습을 그리거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못한 행위라 여겼기에, 초기에는 석존을 상징하는 것으로 법륜(法輪)이나 불

38) 오늘날 이슬람에서 한류가 유행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러한 역사적 관계를 근거로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

39) 김덕삼, 『문수창, 문화의 수용과 창조』, 북코리아, 2013, 92-94쪽.

족(佛足) 혹은 보리수 등의 상징물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기원후 1세기 정도 되어서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문화의 교류 속에 석가모니를 서양의 신들처럼 불상으로 만들었는데⁴⁰⁾ 이러한 것은 간다라와 마투라 지방을 중심으로 발견되었다.

이슬람 문화와 유교 문화 그중에서도 성리학도 교류와 전파, 소멸과 창조의 문화적 변천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이에 대하여 무관심했다. 앞서 본고에서 성리학의 발생과정에 이슬람이 영향을 미쳤다는 추측은 다양하게 언급했지만 아직 근거와 논리는 박약하다. 본 연구의 추측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현재로서는 밝히기 어렵지만, 반대로 성리학이 이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정황적으로 부인하기도 어렵다. 본 연구는 후자의 관점에 비중을 두고 앞으로 진행되는 공동연구와 학제간 교류를 통해 많은 부분을 보충하고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이와 별도로 이슬람이 성리학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앞으로의 지속되는 연구 속에 이슬람이 성리학의 발생과정에 미친 영향의 크기와 방법 등이 규명된다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이슬람과 동아시아인은 서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슬람과 성리학을 통해 상호 동질감을 느끼고 새로운 세계 문명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⁴¹⁾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가 기여할 바도 있을 것이다.

40) 「미란다왕소문경」에 근거하여, 간다라 지역은 아쇼카 왕 시대에 불법이 전래되었고, B.C. 2세기 경에는 그리스계의 미란다왕이 불교에 귀의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최완수, 『한국 불상의 원류를 찾아서』 1, 서울: 대원사, 2006. 28-31쪽). 이러한 측면에서 인도사상과 그리스 사상,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의 회통이라는 측면에서 미란다 왕의 불교 이해는 중요하다.(서영애, 『불교문학의 이해』, 서울: 불교시대사, 2002. 58쪽).

41)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한국의 한남동 거리는 이슬람과 한국문화와의 결합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홍승표(2008), 「종교를 매개로 형성된 한남동 이슬람 거리와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티의 문화적 피난처 역할」,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31-33쪽.

< 參考文獻 >

『莊子』

김덕삼, 『문수창, 문화의 수용과 창조』, 성남: 북코리아, 2013.

김정위, 『이슬람사전』, 서울: 학문사, 2002.

김태호, 『아리스토텔레스 & 이븐 루시드: 자연철학의 조각그림 맞추기』, 서울: 김영사, 2007.

모종삼, 『동양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서울: 소강, 2001.

박원길,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샤머니즘』, 성남: 민속원, 2001.

서영애, 『불교문학의 이해』, 서울: 불교시대사, 2002.

소병선, 『주자학과 토미즘의 철학적 협연』, 서울: 동과서, 2006.

야마다 케이지, 『주자의 자연학』, 김석근(역), 서울: 통나무, 1998.

이광호, 『이슬람과 한국의 민간신앙』, 울산: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8.

최완수, 『한국불상의 원류를 찾아서』 1, 서울: 대원사, 2006.

侯外廬주편, 『中國哲學史』 上, 양재혁 옮김, 서울: 일월서각, 1988.

金宜久 主編, 『当代伊斯蘭教』, 東方出版社, 1996.

金宜久, 『王岱輿思想研究』, 民族出版社, 2008.

馬明良, 『伊斯蘭文明與中華文明的交往歷程和前景』,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柳一虹, 『回儒對話: 天方之經典孔孟之道』, 宗教文化出版社, 2006.

김덕삼, “中國 少數民族 文化接變 樣相의 變化: 回族과 彝族의 文化를 중심으로” 『비교문화 연구』 29집, 2012.

서정민, “이슬람에 나타나는 삼강오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3-2집, 2013.

손주영, “이슬람 전통에서의 천사관”,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0(2), 한국이슬람학회, 2010.

Tamer Musa,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가기: 한국 무슬림의 이슬람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홍승표, “종교를 매개로 형성된 한남동 이슬람 거리와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티의 문화적 피난처 역할”,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황의갑, “이슬람 동방전파의 유형연구(중국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2(1), 2012.

丁克家, “文明對話視角下的回儒對話”, 『阿拉伯世界研究 Arab World Studies』 第3期,

2011.

松本耿郎, “이슬람 존재-성질론의 구조와 지성의 생명력(特集: 이슬람과 종교연구)”, 『종교연구』, 東京, 日本宗敎學會, 2004.

_____, “이슬람에서의 종교간 대화의 이론(종교간 대화의 사상—歷史的諸相とそれらの對話, パネル,〈特集〉第68回學術大會紀要)”, 『종교연구』, 日本宗敎學會, 2010.

_____, “이슬람 철학과 오리엔탈리즘”, 『國際大學中東研究所紀要』 4, pp.1-30, 國際大學中東研究所, 1990.

Muhammad Legenhausen, *Tao of Islam*, Book Review, by Sachiko Murata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On-line]. Available from <http://www.al-islam.org/al-tawhid/general-al-tawhid/book-review-tao-islam-sourcebook-gender-relationships-islamic-thought-0>

P. J. Bearman et al,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ition, Vol. 10, 2000.

KBS, 「고려인 라마단은 왜 광저우에 문혔을까?」, 역사스페셜, 2006.2.24.

< Abstract >

The exchange of the ideas between Islam and East Asia is the task which can't be put off much longer for the Islam thought research of East Asia. Despite long history and interchange of culture, the comparison of cultures between Islam and East Asia is not attempted. The independent viewpoint of Islam and East Asia culture is obtained today after long struggle with western powers. By this paper, we made an genetic attempt to similarities between Neo-Confucianism and Islam based on the previous study about the similarities between Neo-Confucianism. The first possibilities we pay attention at this approach is exchange of ancient times culture. The recent reevaluation of Lacouperie's hypothesis about china that "china comes from west" shows we can find common straits between Islam and East Asia. The second possibilities we find is exchange of Islam and East Asia culture in Tang and Song dynasty when Neo-Confucianism arise. Especially we concentrate whether li(理)-concept in Neo-Confucianism is affected by Islam through Buddhis li(理)-concept in Hwaem Sutra or not.

Key words: Islam, Confucianism, Neo-Confucianism, li(理), Similarity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5. 9. 30.	2015. 11. 2.	2015. 11. 6.	2015. 11. 12.	2015. 11. 30.